지은_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우리 원천기술 국제표준 주도할 표준 코디네이터 출범

스마트 그리드, 3D산업, 전기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원자력, 스마트 미디어 분야

표준 코디네이터는 관련 분야 국제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표준 로드맵을 개발하고, 우리 원천기술의 효율적 국제표준화 추진과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하여 기술별 ·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표준화 협력계획 등을 포함한 '국제표준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편집자〉

국가 R&D 결과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우리기술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국가표준을 종합적으로 관리 · 조율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활동에 전력하기 위한 표준 코디네이터가 공식 출범하였다.

기술표준원은 표준 코디네이터 사업의 출범을 위해 2010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6개 분야별 코디네이터를 공모로 선정 · 임명하게 되었다.

표준 코디네이터가 활약하게 될 6개 분야는 ①스마트 그리드, ②3D산업, ③전기자동차,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원자력, ⑥스마트 미디어이다. 이 과제들은 '시스템 표준 필요', '기술 선도성', '표준 의존성', '표준화 시급성', '미래 성장성', '국가정책 연계성' 등의 세부 선정 사유에 의해 선정되었다.

R&D 결과 산업화로 잇는 조율자 역할도

표준 코디네이터는 관련 분야 국제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표준 로드맵을 개발하고, 우리 원천기술의 효율적 국제표준화 추진과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하여 기술별 ·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표준화 협력계획 등을 포함한 '국제표준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표준을 통해 대형 국가 R&D에 융 · 복합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관련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우수한 우리기술의 발굴과 이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코디네이터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국가 R&D 비중은 세계 3위이나 기술무역 적자는 세계 5위로 연구 성과의 효율성과 산업화 실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각 분야별 기술과 표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국가 R&D 결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기술표준원은 표준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R&D와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술무역적자를 감소시켜 7대 과학기술강국과 표준화 강국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표준 코디네이터 선정 6개 분야 중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미디어 세부 선정 사유 사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표준화 필요	송배전, 통신, 태양광, 풍력, 원격제어 등 약 20개 기술 IP의 융·복합적 분야 - 전력·IT·건설·자동차·에너지 등의 산업이 상호 결합 - 기술 간·인프라 간 시스템과 기기 간의 상호운용성 보장이 핵심으로, 광범위한 표준화 조율과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구심체 필요 (국내 여러 사업단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필수)
	기술 선도성	- 국제적으로 시작 단계 기술로서 국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선도 가능
	표준 의존성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표준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확대시키는 산업분야
	표준화 시급성	- 각국이 사활을 걸고 국가별 혹은 국제협력을 통해 표준개발 추진 중에 있고, 우선적용 핵심제품(스마트 미터, 충전인프라 등)에 대한 국제표준 선행개발에 의한 시장선점이 국내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임
	미래 성장성	현재 초기 시장 생성 단계로, 타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기술 신수요 창출에 의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기술로 시장성이 큼
	국가 정책 연계성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국가 에너지안보정책 관련 분야 - 국내 3년간 약 2,500억 원 투자(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 미디어	시스템 표준 필요	- 이러닝, 전자출판 등과 관련 디바이스 기술이 융·복합되었고,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적 기술과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코디네이션이 필수 -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정부 간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술 선도성	- 교과서, 잡지 등 복잡한 레이아웃이 필요한 전자출판 관련 표현 기술 수요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고, 전자출판과 이러닝의 융합 기술 수요와 방안은 국내에서 먼저 진척된 사안으로 기술 선도성이 있음
	표준 의존성	- 녹색뉴딜 신규 영역인 전자출판과 이러닝 분야의 기술 연계와 상호운영을 위해 표준 의존도는 매우 높음
	표준화 시급성	-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러닝과 전자출판 표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디지털 교과서, 미래형 참고서, 잡지 등) - 태블릿PC, 스마트폰 출시기간 단축과 선점을 위해 JTC1에 Ad hoc 그룹 신설 등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표준화 추진전략 시급
	미래 성장성	-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 - 이러닝과 전자출판 분야 시장 2015년까지 연 10% 이상 지속성장이 예상
	국가 정책 연계성	약 1,400억/년(지경부 교과부 문화부 노동부)